CHAPTER 1

인류학과 문화연구

개요

인류학의 네 분야에 관한 소개

현실 속의 인류학 : 아이티 농촌에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제공하기

문화인류학 소개

인류학자처럼 생각하기 : 부엌에서 행사되는 권력

문화파노라마 : 남아프리카의 산족

문화인류학의 특징

학습목표

1.1 인류학 정의하기

1.2 문화인류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이해하기

1.3 문화인류학의 특징 요약하기

인류학의 연관성

한 장족 소녀가 베트남 국경과 인접한 남중국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계단식 논에서 일하고 있다. 장족의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집단이다. 장족이 사는 지역은 관광산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노인들이 은퇴 후에 생활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천연 광천수의 수질이 이 지역의 주된 관광 유인 중 하나다(Lin and Huang, 2012). 이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은 중국 최고령자인 127세 노인을 포함하여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명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나이 많은 주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한 달을 지내니 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전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발작증세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

식인, '쥬라기공원', 숨겨진 보물, '인디애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 오래된 선사시대 사람들의 화석들, 중국에 있는 젊음의 샘? 인류학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인류학자를 모험가나 영웅으로 묘사하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주로 의거해 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실제로 모험을 하고 또 고대 도자기나 약용 식물 그리고 옥 공예품 같은 보물을 발견한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힘든 물리적 환경 속에서 선조들의 초기 화석을 찾기 위해 몇 년을 보내기도 한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현대적 테크놀로지로 가득 찬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또 가족생활을 꾸려 나가는지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살았던

인류학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인류의 다양성 전체를 연구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당대 문화(왼쪽)를 위시한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기와 더불어 여전히 자신들의 석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서파푸아(뉴기니섬에서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부분)의 다니족도 연구한다.

이 장을 읽으면서, 네 분야의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수집하는 자료(정보)의 종류를 목록화해보라.

장소를 밝혀내기 위해 그의 치아 에나멜 성분을 분석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의 토기 문양을 연구해서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야생 상태의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비인간 영장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관찰하기도 한다.

인류학(anthropology)은 선사시대의 기원에서부터 동시대 인류의 다양성까지 아우르는 인간성에 관한 연구이다. 인류학은 인간성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 분야인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 비해 연구영역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인류학은 이들 학문 분야보다 훨씬 더 폭넓은 시간대를 다루고 더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한다.

인류학의 네 분야에 관한 소개

1.1 인류학 정의하기

북미 인류학은 인간성과 관련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4개의 분야(그림 1.1 참조)로 구분된다.

- **생물인류학 또는 체질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에 관한 연구로 인류의 진화와 현재적 변이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 **고고학**(archaeology)—인간이 남긴 물질적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 **언어인류학**(linguistic anthropology)—이 분야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현재적 변이와 변동에 관해 연구한다.
-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변이와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여기서 **문화**(culture)는 인간의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믿음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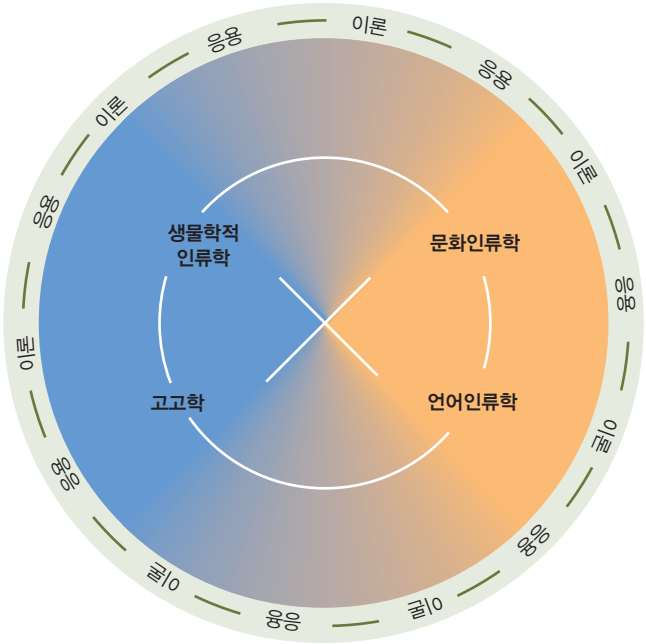


그림 1.1 인류학의 네 분야

일부 인류학자들은 다섯 번째 분야로 응용인류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응용인류학**(applied anthropology, 실천인류학 또는 실용인류학)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혹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인류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분야이다.

생물인류학 또는 체질인류학

생물인류학은 세 종류의 하위 분야를 포함한다. 첫째, 영장류학(primatology)은 영장류라 불리는 비인간 포유류에 관한 연구인데, 영장류에는 아주 작은 야행성 동물부터 가장 큰 고릴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동물군이 포함된다. 영장류학자들은 야생이나 포획된 상태의 비인간 영장류를 연구한다. 그들은 이들 동물이 시간을 보내고, 식량을 획득 및 분배하고,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새끼를 기르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갈등을 경험 및 해결하는 방식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영장류학자들은 비인간 영장류가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멸종

인류학 인간에 관한 연구로서 선사시대 인류의 기원과 동시대 인류의 다양성을 연구한다.

생물인류학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을 연구하는 분야로 인류의 진화와 동시대적 변이에 관한 연구를 아우른다.

고고학 물질적 유물에 의거해 과거 인류의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

언어인류학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서 언어의 기원, 역사, 동시대의 변이와 변화 등을 연구한다.

문화인류학 현존하는 인류와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차이와 변동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문화 인간의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신념

응용인류학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혹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인류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분야이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한다. 많은 영장류학자들이 영장류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고인류학(paleoanthropology)으로서 화석기록에 기초해 인간의 진화에 관한 연구를 한다. 이 분야의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은 진화가 일어난 방식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화석을 발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분야는 동시대 인류의 생물학적 변이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류학자들은 동시대 인류의 생물학적 특징과 행위에서 발견되는 차이들을 규정 및 측정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은 특정한 인구집단 내의 유전자 및 인구집단들 사이의 공통적인 유전자, 신체의 크기와 모양, 영양 상태와 질환 그리고 성장과 발달 같은 생물학적 요인들을 연구한다.

1997년 한 과학수사인류학자(forensic anthropologist)가 과테말라 고산지대의 한 마을에서 50구가 넘는 시신을 발굴하는 모습을 마야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과학수사인류학적 작업은 과테말라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일은 생존자들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의 대학에 과학수사인류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일부 고고학자들은 수중고고학을 주전공으로 삼고 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수중고고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스테펜 루브크만(Stephen Lubkemann)이 19세기 중엽 드라이토르투가스(Dry Tortugas) 군도에서 난파된 선박인 DRTO-036의 선체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플로리다키스 제도의 드라이토르투가스 국립공원에 전시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유네스코 수중유산보호협약을 찾아볼 수 있다.

고고학

고고학은 문자 그대로 '옛것에 관한 연구'지만, 여기서 '옛것'의 범위는 인간의 문화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고고학의 시간적 깊이는 호모사피엔스 초기, 즉 30~16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까지만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은 2개의 주요 분야, 즉 문자 기록 이전의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선사고고학(prehistoric archaeology)과 기록된 문서를 가진 사회의 인간을 다루는 역사고고학(historical archaeology)으로 나뉜다. 선사고고학자들은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에 의거해, 예를 들어 구세계 고고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혹은 신세계 고고학(북미와 중남미)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로 스스로를 구분한다.

고고학의 또 다른 일련의 하위 분야는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는 장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중고고학(underwater archaeology)은 침수된 고고학적 유적에 관한 연구이다. 수중고고학적 유적은 선사시대의 유물일 수도 있고 역사시대의 유물일 수도 있다. 일부 고고학적 유적은 이전에는 호수 연안이었으나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스위스의 주거지 유적 같이 유럽 일부 지역의 초기 인류 주거지들을 포함한다.

가까운 과거를 연구하는 고고학은 또 다른 중요한 연구방향을 보여준다. 소위 당대생활 고고학(archaeology of contemporary life)의 한 예로 애리조나대학교 투손 캠퍼스의

현실 속의 인류학

아이티 농촌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하기

저널리스트 트레이시 키더(Tracy Kidder)의 *Mountains Beyond Mountains: The Quest of Paul Farmer, a Man Who Would Cure the World*(2003)라는 책은 영감으로 넘치는 사람인 폴 파머(Paul Farmer)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파머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의학과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문화인류학과 의학을 통해 받은 훈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강력한 처방이 되었다.

그는 첫 번째 책인 *AIDS and Accusation: Haiti and the Geography of Blame*(1992)에서 아이티에 HIV/에이즈 출현 그리고 한 농촌공동체가 이 새롭고 파괴적인 질병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외부 세계가 어떻게 아이티를 이 질병의 근원지로 잘못 비난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서술했다. 파머는 전 세계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서 빈곤과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서구 의료의 근본 토대를 뒤흔들고 있다.

파머는 학술적 저술 활동을 하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영향력 있는 의료인이자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파트너스 인 헬스(Partners in Health)라는 단체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9년에 파머는 미국의 특사로 아이티에 파견되었다. 그는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 후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기 위한 활동을 부단하게 수행해 왔다.

필자가 가르치는 학부 문화인류학 수업에서 폴 파머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Mountains Beyond Mountains*를 읽었다. 몇몇은 그의 강연을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의료계와 인류학계에 기여한 높은 인지도로 인해 파머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폴 파머 효과(Paul Farmer Effect, PFE)라 부르기로 했다. 이 이름은 파머가 학생들에게 행한 피리 부는 사람(Pied Piper)의 역할을 가리킨다. 즉 학생들은 파머의 선구자적 행동을 따르고, 폴 파머가 되기를 원했다. 학생들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강과목을 고르고 전공과 부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2011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병원에서 한 아이가 콜레라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다. 아이티에서는 전체 인구 1,000만 명 중 45만 명 이상, 즉 인구의 약 5퍼센트에 달하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그중 6,000명 넘게 사망했다. 아이티는 이곳에 콜레라를 들여온 사람들이 유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상을 받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는 2010년에 PFE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PFE 덕분에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인류학, 글로벌 보건의료,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시작했고, 인도주의적 진로를 추구하고 있다. 폴 파머와 PFE 덕분에, 그들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더 강력한 지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쓰레기 프로젝트(Garbage Project)'를 들 수 있다(Rathje and Murphy 1992). 그들은 뉴욕시 인근 스태튼 섬의 프레시킬스(Fresh Kills) 매립지 일부를 발굴했다. 프레시킬스 매립지의 중량은 1억 톤이고 부피는 29억 제곱피트에 달한다. 따라서 그것은 북미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거대한 구조물 중 하나이다. 깡통 캔의 탭, 일회용 기저귀, 화장품 병, 전화번호부 등의 발굴은 현재의 소비 패턴과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준다.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매립지를 가득 채운다고 사람들이 흔히 비난하는 패스트푸드 포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같은 종류의 쓰레기가 오히려 종이보다 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문이 주범인데, 그 이유는 버려지는 양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을 위한 노력들을 개선할 수 있다.

언어인류학

언어인류학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인간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제9장에서 이 분야를 다룬다). 언어인류학에는 3개의 하위 분야가 있다.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와 언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다. 기술적 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 혹은 구조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은 동시대 언어들이 형식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연구한다. 사회언어학은 사회적 변이, 사회적 맥락, 비구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언어적 변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언어인류학의 새로운 동향은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주제는 제9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나 담론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Duranti, 1997a). 두 번째는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휴대전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세 번째는 토착 언어 소멸의 가속화와 그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은 동시대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라는 용어는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신념을 지칭한다. 문화인류학은 통(通)문화적인(cross-cultural) 차이와 유사성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문화가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장시간을 투자해서 문화에 관해 배우는데 통상 연구하는 사람들과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한다(제2장 참조).

문화인류학의 중요한 전문 분야는 경제인류학, 심리인류학, 의료인류학, 정치인류학, 국제개발인류학 등을 포함한다.

응용인류학 : 독립된 분야인가 아니면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구초점인가?

미국에서 응용인류학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후에 출현했다. 초기의 관심사는 동시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필요를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인류학의 여타 세 가지 분야보다 문화인류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응용인류학을 인류학의 다섯 번째 분야로서 독립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이들은 이론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응용이 각 분야의 일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림 1.1 참조). 필자는 바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많은 응용인류학적 사례를 논하고 있다.

응용인류학은 인류학의 네 분야 모두를 관통하는 중요한 연결선이다.

- 고고학자들은 문화자원경영(cultural resource management, CRM)에 고용되어 도로나 건물 같은 건설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고고학적 유물의 존재 가능성에 관해 평가한다.
- 생물인류학자들은 과학수사인류학자로 고용되어 유해를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을 통해 범죄수사에 참여한다. 다른 이들은 영장류 보호시설에서 일한다.
- 언어인류학자들은 이중 언어 인구집단을 위한 표준화 테스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교육기관들과 상의하고 정부를 위해 정책조사를 수행한다.
- 문화인류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교육, 보건, 비즈니스, 빈곤퇴치, 분쟁예방과 해결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관련 사례는 '현실 속의 인류학'을 보라).

문화인류학 소개

1.2 문화인류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이해하기

문화인류학은 전 세계 인류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연구한다. 문화인류학은 '낯선 것을 친숙하게 그리고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든다(Spiro, 1990). 따라서 문화인류학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외부'로부터 다소 '낯선' 문화로 보도록 가르친다.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좋은 사례로는 1956년 처음 기술된 문화인 나시레마(Nacirema)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나시레마는 캐나다 크리 인디언, 멕시코의 야키족과 타라후마라(Tarahumara)족 그리고 앤틸리스 제도의 아라와크족 영토 사이에서 살아가는 북미의 집단이다. 이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구전에 따르면 동쪽에서 도래했다. 나시레마의 신화에 따르면 이 나라는 문화 영웅 놋니소(Notgnihsaw)에 의해 세워졌다. 그는 두 개의 위대한 업적, 즉 파토맥(Pa-To-Mac) 강을 가로질러 조가비 염주를 던진 것과 진리의 정령이 거하는 체리나무를 도끼로 베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er, 1965[1956] : 415).

이 인류학자는 이어서 나시레마 사람들이 몸에 대해 보여주는 집착을 묘사한다. 그는 집 안에 특별히 마련한 성소에서 수행되는 일상적 의례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 그 성소의 중심은 벽에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는 상자이다.

> 이 상자 속에는 많은 종류의 주술적 묘약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지인들은 모두 그것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묘약은 다양한 전문 주술사들로부터 확보된다. 이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는 치료사인데, 그는 도움을 주는 대가로 상당한 양의 선물을 받는다… 묘약 상자 아래에는 작은 성수반(聖水盤)이 있다. 날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연이어 성소로 들어가 묘약 상자 앞에 그의 머리를 조아리고 성수반 안에 각양각색의 신성한 물을 섞은 다음 간단한 세정식을 치른다(415-416).

아직도 이 부족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나시레마의 철자 순서를 뒤바꿔 보라. (주 : 이 글의 필자 마이너가 나시레마 사회를 묘사하면서 전반적으로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싶다. 그가 이 글을 쓴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문화인류학의 간략한 역사

문화인류학의 시작은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조우한 문화에 관해 기록했던 헤로도토스(기원전 5세기), 마르코 폴로(13~14세기), 이븐 할둔(14세기) 같은 역사적 인물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인류학의 보다 최근 개념적 뿌리는 18세기 전반에 저술 활동을 한 철학자 샤를 몽테스키외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발견된다. 1748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s)』은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 생김새, 정부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는 문화적 차이를 사람들이 사는 기후의 차이로 설명했다.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생물학적 진화의 원리가 발견되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 처음으로 과학적인 설명이 제공되었다. 생물학적 진화는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해 초기 형태가 이후의 형태로 진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연선택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유기체는 생존하고 번식하지만 적합하지 못한 유기체는 사멸한다. 이렇게 다윈의 모델은 경쟁하는 유기체들 사이의 투쟁을 통해서 적응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논지다.

진화의 개념은 초기 문화인류학자들의 사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문화인류학의 토대를 닦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영국의 에드워드 타일러 경(Sir Edward Tylor)과 제임스 프레이저 경(Sir James Frazer), 그리고 미국의 루이스 헨리 모건(Lewis Henry Morgan)을 들 수 있다(그림 1.2 참조). 그들은 모든 문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차원적인 형태에서 고차원적인 형태로 진화한다는 문화적 진화의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관점은 비서구인들을 '야만' 단계에 구미 문화를 '문명' 단계에 위치시켰고, 비서구 문화가 서구 문명의 수준을 따라잡지 않으면 사멸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20세기 초반 현대 문화인류학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브로니슬라브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는 **기능주의**(functionalism)라 불리는 이론적 접근방식을 확립하였다. 기능주의는 문화가 생물학적 유기체와 유사하게 부분이 전체의 기능과 존속을 위해 작동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종교와 가족 조직이 전체 문화의 기능에 기여한다는 식이다.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는 북미 문화인류학의 창립자로 간주된다. 독일에서 태어나 물리학과 지리학을 공부한 그는 1887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Patterson, 2001: 46ff). 그는 캐나다 배핀 섬(Baffin Island)의 원주민인 이누이트(Inuit)인에 대한 1년여의 연구를 통해 서구과학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42쪽 지도 2.3 참조). 그는 이누이트인들로부터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물'과 같이 기본적인 물질에 대해서도 상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아스는 상이한 문화들의 특수성과 타당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 널리 알려진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라는 개념, 즉 각각의 문화는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관념에 입각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른 문화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주창했다. 보아스에 따르면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에 비해 '더' 선진적이거나 우수하지 않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19세기 문화 진화론자들의 입장과 현저하게 대조된다.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는 보아스의 가장 유명한 제자이다. 그녀는 남태평양의 문화, 성역할 그리고 자녀양육 관행이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다. 그녀의 학술적 저작뿐만 아니라 대중 잡지의 칼럼들도 1950년대 미국의 육아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미드는 초창

기능주의 문화가 생물학적 유기체와 유사하게 부분이 전체의 기능과 존속을 위해 작동한다고 보는 이론

문화상대주의 각각의 문화는 그 문화 자체의 가치와 관념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며 다른 문화의 잣대를 통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

그림 1.2 구미 문화인류학에 기여한 주요 학자들

19세기 후반	
에드워드 타일러 경	안락의자인류학자, 최초의 문화 정의
제임스 프레이저 경	안락의자인류학자, 종교에 관한 비교연구
루이스 헨리 모건	내부자의 관점, 문화 진화, 비교방법론
20세기 초	
브로니슬라브 말리노프스키	기능주의, 총체론, 참여관찰
프란츠 보아스	문화상대주의, 역사적 특수주의, 권익옹호운동(advocacy)
마거릿 미드	문화와 인성, 문화구성주의, 공공인류학(public anthropology), 인류학의 대중화
루스 베네딕트	문화와 인성, 국민성 연구
조라 닐 허스턴	흑인 문화, 여성의 역할, 민족지적 소설
20세기 중·후반, 21세기 초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상징적 분석, 프랑스 구조주의
베아트리체 메디슨	아메리카 원주민 인류학
엘리너 리콕	식민주의와 토착민에 관한 인류학
마빈 해리스	문화유물론, 비교, 이론 정립
메리 더글러스	상징인류학
미셸 로잘도	페미니스트 인류학
클리퍼드 기어츠	해석인류학, 로컬 문화에 관한 심층기술
로라 네이더	법 인류학, '상향 연구'
조지 마커스	문화 비평, 문화인류학 비평
길버트 허트	게이 인류학
낸시 셰퍼-휴스	비판적 의료인류학
리스 멀링스	반인종주의 인류학
샐리 엥글 메리	세계화와 인권
라일라 아부-루고드	젠더정치, 기억의 정치

기 대중적 문화인류학자의 한 명으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도출하는 데 문화인류학적 지식의 대중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문화인류학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인류학자의 수와 대학에 개설된 인류학과의 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팽창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이론적 다양성도 확대되었다. 몇몇 인류학자들은 환경적 요인에 기반을 둔 문화 이론을 구축했다. 그들은 유사한 환경(예 : 사막, 열대우림, 혹은 산악지역)이 유사한 문화의 출현과 예측 가능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프랑스 구조주의로 알려진 아주 다른 이론적 관점을 구축했다. 그는 특정한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화의 신화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심층적인 테마들을 분석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구조주의는 20세기 후반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졌던 상징인류학, 즉 문화를 의미체계로서 연구하는 분야의 발달에 영감을 제공했다.

1960년대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인류학 진영 내에 등장했다. 이는 미국에서 **문화유물론**(cultural materialism)이라 불리는 새로운 이론적 학파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유물론은 삶의 물질적 측면, 특히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는 문화연구의 한 이론이다. 또한 **해석인류학**(interpretive anthropology) 혹은 해석주의라 불리는 새로운 이론적 입장도 1960년대에 등장했다. 이 이론적 관점은 미국의 상징인류학과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해석인류학은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문화의

문화유물론 환경, 자연자원 그리고 생계양식 같은 삶의 물질적 차원을 사회조직과 관념을 설명하는 기반으로서 접근하는 이론

해석인류학 문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관념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관념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상징과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들 두 입장에 관해서는 이 절의 뒤에서 더 상세하게 논의된다.

1990년대부터는 또 다른 두 가지 이론적 방향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두 이론 모두 포스트모더니즘, 즉 현대성(modernity)이 진정한 진보인가를 묻고, 과학적 방법, 도시화, 기술적 변화, 매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모더니즘의 측면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 동향에 영향을 받았다. 첫 번째 이론은 **구조주의**(structurism, 필자의 용어)로서 경제, 정치, 미디어 같은 강력한 구조가 문화를 규정해서 미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 이론은 구조에 맞서 행동함으로써 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시키는 인간의 **주체적 행위능력**(agency), 즉 자유의지와 개인들의 힘을 강조한다.

인류학의 세 가지 이론적 논쟁

인류학의 세 가지 이론적 논쟁은 왜 통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차이가 나면서도 유사할까, 왜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할까,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이들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까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첫 번째는 생물인류학과 문화인류학 사이의 논쟁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문화인류학 진영 내에서의 논쟁이다.

생물학적 결정론 대 문화구성주의 **생물학적 결정론**(biological determinism)은 인간의 행위와 사고를 유전자와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결정론자들은 살인행위, 알코올중독, 청소년기 스트레스 같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나 호르몬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또한 그들은 문화적 실천들을 그것이 '종의 성공적 재생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즉 어떻게 그것이 생존하는 자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후속 세대의 유전자 풀에 기여하는지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재생산상의 이점을 지닌 행위와 사고가 다른 것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 잘 전승된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결정론은 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분명하게 '더 나은' 공간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가 '더 나은' 공간기술을 보유한 남성이 식량과 배우자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진화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한다. '더 나은' 공간기술을 갖춘 남성은 더 많은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공간기술을 가진 자손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문화구성주의**(cultural constructionism)는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문화적으로 규정된 학습의 결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구성주의자들은 남성의 '더 나은' 공간기술이 유전자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 문화적으로 전승된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교사들이 남아와 여아에게 공간기술을 다르게 사회화하고, 남아에게 특정한 공간기술의 학습을 더 장려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와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 요인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살인과 알코올중독 같은 행위를 설명하는 데 문화적 구성과 학습을 더 선호하는 인류학자들은 유전자나 호르몬보다 유아기 경험과 가족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가 문화구성주의자지만, 일부는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생물학과 문화를 연결시키기도 한다.

해석인류학 대 문화결정론 해석인류학 또는 해석주의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상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힌두교도의 식사습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주의자들은 왜 그들이 쇠고기를 먹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힌두교도들은 암소가 신성하고 암소를 죽이거나 먹는 것이 죄라는 점에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드러낸다. 해석주의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화유물론은 인간적 삶의 물질적 측면, 즉 환경 그리고 특정한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유물론자들은 비록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사실들이

구조주의 경제, 사회정치조직, 미디어 같은 거대한 힘들이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인간 행위와 관념에 관한 이론적 입장

주체적 행위능력 지배적인 구조 내에서도 선택을 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생물학적 결정론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주로 유전자와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 특질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

문화구성주의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주로 학습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하는 이론

교통 혼잡의 두 유형을 보여주는 인도(왼쪽)와 미국(오른쪽)의 도시 풍경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가들이 가까운 미래나 10년 후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화를 규정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3수준 모델을 사용한다. 최하위 수준은 천연자원, 경제, 인구 같은 기본적인 물질적 요소들을 지칭하는 하부구조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하부구조가 문화의 다른 두 영역, 즉 구조(사회조직, 친족, 정치조직)와 상부구조(이념, 가치, 믿음)를 규정한다. 이 책의 각 장은 대체로 이 세 범주에 입각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층위가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암소 도살과 쇠고기 먹기를 금기시하는 터부에 대한 문화유물론적 설명은 인도에서는 소가 죽거나 스테이크용으로 도축되는 것보다 살아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Harris, 1974). 인도의 도시와 마을 거리를 돌아다니는 소들이 서구인들에게는 무용지물로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겉으로 무용지물로 보이는 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소들은 함께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면서 종이 쓰레기와 여타 먹을 수 있는 쓰레기를 먹어치운다. 그들의 배설물은 '갈색 황금'으로, 비료로서 유용하고 볏짚과 섞어 파이 모양으로 말리면 요리용 연료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들이 논을 경작하는 데 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화유물론자들은 소의 성스러운 의미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믿음을 고려에 포함시키긴 하지만, 소의 성스러운 의미와 소의 물질적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처럼 엄청나게 유용한 동물이 쇠고기 가공공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상징적 보호 장치로 이해한다.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은 강경한 문화유물론자인 반면, 일부

는 강경한 해석주의자이다. 많은 이들은 이 양자의 견해 중 최고의 것들을 조합해서 연구한다.

개인의 주체적 행위능력 대 구조주의 이 논쟁은 개인의 통제를 초월한 수준의 힘 혹은 구조와 비교해서, 개인의 의지 또는 인간의 주체적 행위능력이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서구의 철학 사상은 인간의 주체적 행위능력, 즉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많은 방점을 둔다. 대조적으로, 구조주의는 선택이 경제, 사회 · 정치 조직, 미디어 같은 보다 더 큰 힘들에 의해 구조화되기 때문에 자유 선택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사례가 빈곤에 관한 연구이다. 인간의 주체적 행위능력을 강조하는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개인들이 심각한 빈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해 주체적 행위자로 행동하는지에 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이와 반대로, 구조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크고 강력한 힘들에 포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어떻게 정치경제와 여타 힘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주체적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구조주의적 관점을 인간의 주체적 행위능력에 대한 관심과 결합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변화하는 관점들

문화인류학은 끊임없이 재고되고 재형성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이론적 관점들이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탈바꿈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 왔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은 여성의 역할과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1970년대에 초기의 페미니스트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이 여성을 간과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페미니스트 인류학자들은 세계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된 분야 중 하나는 게이-레즈비언 인류학(gay and lesbian anthropology) 혹은 퀴어 인류학(queer anthropology)으로 게이들의 문화 그리고 성정체성과 성선호에 기반 한 차별에 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책은 이 두 분야 모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북미 인류학계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티노,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인류학자들의 수와 사회적 가시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인류학은 여전히 '가장 백인 중심적인' 직업 중 하나로 남아 있다(Shanklin, 2000). 인류학을 보다 포괄적인 분과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Mullings, 2005).

- 인류학의 인종주의적 역사와 인종주의적 성격에 관해 검

콜롬비아의 학회에 참석한 콜롬비아 인류학자 패트리샤 토바르(Patricia Tovar)(가운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응용인류학이 문화인류학의 핵심적인 분야이다.

토하고 평가한다.

- 인류학계 내의 교수, 연구자, 직원, 학생들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인류학 강의와 교재를 통해 인종주의에 관해 가르친다.

전 세계적으로 비서구 출신 인류학자들이 구미 인류학의 지배적 위상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다(Kuwayama, 2004). 그들의 연구는 상당히 서구적으로 정의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류학에 대해 유용한 비평을 제공하고 미래에 인류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문화의 개념

문화인류학자들은 다들 문화에 관해 연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오늘날 문화의 정의, 문화의 속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토대에 관해 논의한다.

문화의 정의 문화는 문화인류학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인류학자들이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1950년대에 문화에 대한 정의들을 수집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무려 164개의 상이한 문화 정의가 존재했다(Kroeber and Kluckhohn, 1952). 그 후 아무도 인류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문화 정의의 수를 세어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영국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 경이 1871년에 처음으로 문화를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 혹은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학습한 여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Kroeber and Kluckhohn, 1952:81)이다. '복합적 총체'라는 표현이 그의 문화 정의에서 가장 지속적인 설득력을 발휘해 왔다.

당대의 문화인류학 진영 내에서 문화유물론자와 해석인류학자들은 문화에 대해 상이한 두 종류의 정의를 지지한다. 문화유물론자인 마빈 해리스에 따르면 "문화는 특정한 인구집단의 학습된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문화는 특정한 사회 혹은 그 하위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특징적인 유형화되고 반복적인 사고, 느낌, 행동의 방식으로 구성된다"(1975:144). 이와 대조적으로 해석인류학자인 클리퍼드 기어츠는 문화란 상징, 동기, 기분, 생각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지각, 사고, 관념에 초점을 맞추며 행위는 문화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문화의 정의는 문화란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믿음으로서 기어츠의 정의보다 더 폭이 넓다.

문화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몇몇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문화 개념을 대문자 'C'로 시작되는 Culture로 표기한다. **미시문화**(microculture) 또는 로컬 문화라는 용어는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집단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유형의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관념을 지칭한다. 미시문화는 종족성(ethnicity), 젠더, 연령 등에 기반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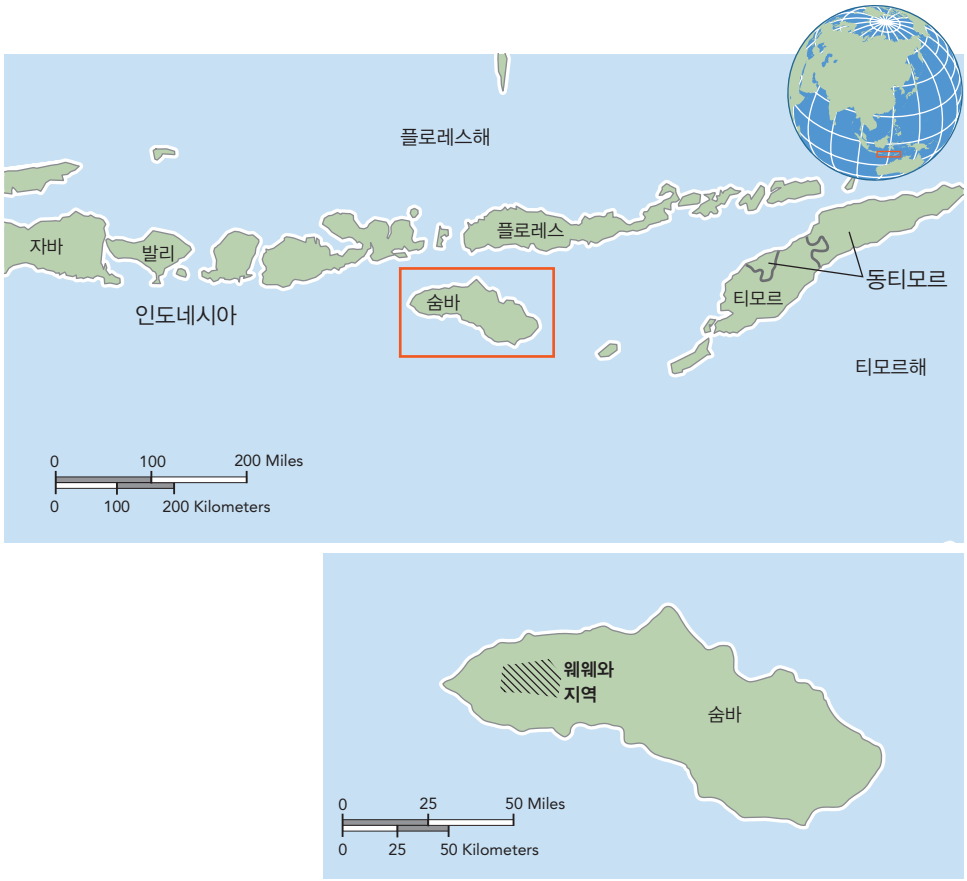
문화의 속성 복잡한 문화 개념에 관한 이해는 그 특징들을 조명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문화는 자연과 동일하지 않다 자연과 문화 사이의 관계는 문화인류학자가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를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이 책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가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자연을 규정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상이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삶의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필요사항을 조명해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기능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들 네 가지 기능이 갖는 선험적 중요성이 주어져 있다면, 모든 곳의 사람들이 그 기능을 비슷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식사 문화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규정하고 음식과 식사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문화는 또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의한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즈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즈를 매우 좋아한다. 중국 전체에 걸쳐 돼지고기는 널리 선호되

미시문화 보다 큰 문화 내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형의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사고



지도 1.1 인도네시아 웨웨와 지역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 가운데 하나인 숨바 섬의 길이는 75마일이다. 웨웨와 사람들의 인구는 약 85,000명인데, 이들은 섬 서부 지역의 풀로 덮인 고원에 위치한 작은 촌락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쌀, 옥수수, 기장을 재배하고 물소와 돼지를 기른다.

는 고기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소비를 금한다. 야생 식물의 채집 및 사냥과 어로가 중요시되는 많은 문화의 사람들은 음식의 신선함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들은 식료품점의 선반에 놓인 냉동식품 꾸러미를 먹기에 적절한 시간을 한참 넘긴 것으로 여길 것이다.

맛에 대한 인식은 극적으로 다양하다. 서구의 연구자들은 보편적인 맛의 범주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4종류가 있다고 추정한다. 통문화적 연구는 이들 4종류의 맛이 보편적이지 않음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숨바(Sumba) 섬 고원지대(지도 1.1 참조)의 웨웨와(Weyéwa) 사람들은 신맛, 단맛, 짠맛, 쓴맛, 시큼한 맛, 단조로운 맛, 쏘는 맛의 일곱 가지 범주로 맛을 규정한다(Kuipers, 1991).

먹는 방법 또한 음식 관련 행위의 중요한 측면이다. 적절한 식사 방법에 관한 규칙들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인도의 식사법은 오직 오른손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왼손은 배변 후 뒤처리 시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식사 도구로 청결한 오른손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접촉한 식기류는 심지어 세척한 것일지라도 더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문화에서는 음식을 개인용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것이 중요한 반면, 중앙에 놓인 공동 접시로부터 음식을 먹는 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도 있다.

문화적 차이의 또 다른 영역은 누가 음식의 조리와 서빙에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많은 문화에서 가정 요리는 여성의 역할이지만 공적인 연회를 위한 요리는 남성의 일인 경우가 더 흔하다.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요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권력관계가 작동할 수도 있다('인류학자처럼 생각하기' 참조).

마시기 마시기와 관련된 통문화적인 변이 또한 복잡하다. 모든 문화는 마시는 데 적절한 물질과 언제 누구와 마실지를 규정하고 마실거리와 마시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프랑스 문화는 점심을 포함하여 가족 식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테이블 와인을 소비하는 것을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식사 동안에는 물이 제공되고 소비된다. 인도에서는 물이 식사 마지막 단계에서 제공되고 소비된다. 전 세계에 걸

함께 식사를 하는 에티오피아 가족(왼쪽). 이들의 전형적인 식사는 특별한 양념으로 조리해서 인제라(injera) 빵에 얹은 고기와 야채 요리 몇 가지로 구성된다. 인제라는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몇 점의 고기와 야채를 한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싸는 데 사용되는 부드럽고 얇은 빵이다. 이들 음식 모두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오른쪽).

이러한 식사는 사회적 배치와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최근에 한 식사와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가?

쳐 상이한 범주의 사람들이 상이한 종류의 음료를 마신다. 알코올성 음료가 소비되는 문화에서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그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는 종종 특정한 음료의 의미와 그것을 마시고 제공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사회적 마시기는 마시는 음료가 커피, 맥주, 보드카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유대를 창출하고 강화한다. 미국의 대학 남학생 사교클럽에서의 맥주 마시기 의례가 좋은 사례이다. 미국 북동부의 한 대학에서 촬영된 '샐러맨더스(Salamanders)'라는 제목의 민족지 영화를 보면 사교클럽 남학생들이 클럽하우스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각 장소마다 맥주를 단숨에 들이킨다(Hornbein and Hornbein, 1992). 한 지점에서 어떤 남학생이 맥주를 단숨에 마시고 비틀거리며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가 앞으로 고꾸라져 기절해버린다. 영화는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에서 젊은 남녀가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살아있는 도롱뇽을 때로는 한 번에 2~3마리씩 삼키는 또 다른 음주의례를 보여준다(이러한 관행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수면 상식적으로 수면은 문화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자연적인 기능의 하나라고 주장할 것이다. 누구나 최소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잠을 자고 모두가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자리에 누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다면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면은 최소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만큼이나 문화적으로도 규정된다. 수면에 대한 문화의 영향은 누가 누구와 함께 잠을 자는가, 얼마만큼의 잠을 자야 하는가, 왜 일부 사람들은 수면장애라 불리는 불면증을 겪는가 등의 질문을 포함한다. 통문화적으로 유아와 아동이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하는가, 즉 엄마와 잘 것인가, 양 부모와 함께 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방에서 따로 잘 것인가를 규정하는 규칙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남아메리카 아마존 지역 토착민들의 경우, 엄마와 유아가 여러 달 동안 같은 해먹에서 함께 잠을 자고 아기가 배고파 할 때마다 모유를 먹인다.

문화는 개인이 잠을 자는 시간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 농촌의 여성은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나 불을 지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잠을 적게 잔다. 이에 반해 분주하게 돌아가는 회사 같은 북미에서 'A유형' 남성은 상대적으로 잠을 적게 자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에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무기력함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지나친 주간졸림증(EDS)이라 불리는 수면장애가 도쿄와 다른 대도시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Doi and Minowa, 2003). 지나친 졸음은 직장에서의 보다 잦은 사고, 잦은 결근, 낮은 생산성, 사적 · 직업적 관계의 저하 그리고 질병 및 사망률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주간 졸림증을 겪으며 특히 기혼 여성이 이에 취약하다.

배설 통문화적인 경험에서 차지하는 그 기본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들은 배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아 왔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배설을 하느냐는 것이다. 배설이

인류학자처럼 생각하기

부엌에서 행사되는 권력

가족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사랑과 헌신의 표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으로 보답하는 것이 기대된다는 메시지를 수반할 수 있다. 미국의 테하노(Tejano) 이주민 농장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타말리(tamale)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여성의 헌신을 상징하고 따라서 '좋은 아내'의 상징이기도 하다(Williams, 1948). 테하노는 텍사스에 사는 멕시코계 사람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여름에 이주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일리노이로 이주한다.

테하노들에게 타말리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표식이다. 타말리는 풍성하게 다진 돼지 머리고기를 옥수수 껍질로 싸서 만든다. 타말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는 바로 여성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여성이 타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인 돼지 머리 구입, 껍데기 벗기기, 속 준비, 옥수수 껍질로 속 싸기, 타말리 굽기 또는 끓이기 등을 하기 위해 며칠 동안 함께 일한다.

타말리는 여성의 남편에 대한 애정 깊은 보살핌을 상징하고 강조한다. 텍사스의 한 노인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집에서 며느리, 조카딸, 대녀(代女)와 함께 200여 개의 타말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 타말리를 친구, 친척, 지역 선술집 등에 나누어주었다. 타말리를 만들고 나누어주는 데 수고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테하노들은 타말리를 만드는 것을 통해 명절을 즐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결속을 구축하며, 선술집 주인들과 소통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남자 친척들을 보살펴줄 수 있도록 한다.

테하노 여성들은 또한 타말리 만들기를 가정 내 불만의 표현수단으로서 활용하기도 한다. 남편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여성은 타말리 만들기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그녀의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불만의 표현방식이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과 타말리 만들기의 연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타말리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혼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리노이의 한 젊은 테하노는 아내가 축제에서 다른 남성과 춤을 췄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 타말리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이혼 승인을 거부했다.

타말리는 옥수수 반죽에 볶은 고기와 고추를 섞은 다음 옥수수 껍질로 싸서 만든다.

생각할 거리

여러분의 미시문화적 경험에서 음식이 사회적 결속이나 사회적 저항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어보라.

얼마나 사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다소 공공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난다.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남성은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용인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인도의 대부분 촌락에는 집 안에 실내 화장실이 없다. 대신 아침 일찍 여성들은 무리를 지어 집을 떠나 특정한 장소로 가서는 쪼그리고 앉아서 수다를 떤다. 남성들은 다른 장소로 간다. 모든 이들이 물을 담은 작은 놋그릇 하나를 왼손에 들고 가서는 볼일을 보고 난 후 세척한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배설체계는 농토에 비료를 주면서도 어떠한 종이 쓰레기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서구인들은 촌락의 이러한 관행이 더럽고 불쾌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도의 촌락 주민들은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물로 세척하는 것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식 체계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 것보다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많은 문화에서 소변과 대변 등의 배설물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파푸아뉴기니(지도 1.2 참조)의 몇몇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묻거나 숨기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누군가 그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불리한 주술을 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배설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북서부 태평양 연안의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 소변, 특히 여성의 소변은 치료와 정화 효과가 있다고 생